

출장보고서

기업생태계연구본부 기업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양주영

I. 출장 개요

- (1) 출 장 자: 양주영 부연구위원
- (2) 출장지역: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 (3) 출장기간: 2017. 12. 13~ 2017. 12. 17
- (4) 출장목적: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회의 참석

(5)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

일자	일정 및 방문기관	주요 내용
12월 13일 (수)	- 인천 출발, 파리 도착	
12월 14일 (목)	- 무역위원회 작업반 회의 참석	-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trade facilitation - SME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 Estimation of ad-valorem equivalent of Non-Tariff Measures for the METRO model
12월 15일 (금)	- 무역위원회 작업반 회의 참석	- Multinational production and trade in services - Micro-evidence on corporate relationships in global value chains - Intra-EU STRI
12월 16일 (토)	- 파리 출발	
12월 17일 (일)	- 인천 도착	

II. 주요 내용

□ 회의 내용

- 2017년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된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 회의는 무역원활화와 청렴성간의 관계, 국제소포무역, 중소기업·국제무역·무역원활화 관련 새로운 프로젝트의 승인과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
 - 무역·투자에 대한 페이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활동 중 서비스 부분의 생산과 무역활동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OECD 서비스제한지수의 데이터의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논의함.
- 서비스 무역과 다국적기업을 통한 서비스 생산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와 프로젝트가 진행·계획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협정 내에서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 개정과 이러한 개정을 통한 무역, 다국적기업의 생산과 무역참여 확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결과가 소개됨.
- 서비스 부문의 무역확대를 위한 국제간의 규제공조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규제위원회 등과의 다양한 OECD 위원회와의 프로젝트 및 연구협조의 필요성

□ 관찰 및 평가

-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에서 진행 혹은 추진계획중인 연구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 신정부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연구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관측 및 한국의 의견을 받

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서비스 무역부문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되며, 다국적기업의 서비스 생산과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이를 위한 규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됨.
- 해당 부분의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 구축에서 OECD는 무역, 투자, 다국적기업 및 규제 등의 다양한 측면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하고 있으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Ⅲ. 세부 내용

1. 청렴성과 무역원활화간의 관계 조사 연구계획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trade facilitation - Scoping paper)

- 해당 연구계획은 청렴성과 무역원활화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뇌물을 요청하는 기회에 대해 연구하며, 투명성, 예측가능성, 절차에 대한 내용을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고 설명함

- 연구계획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주제는 부패측정으로, WEF 서베이, 월드뱅크 기업서베이(World Bank Enterprise Survey)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역원활화의 전반적인 측정이라고 밝힘

- 향후 무역위원회 작업반회의에서 기술적 페이퍼(Technical paper)가 발표될 예정이며 '19.2월에 종합보고서로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

2. 중소기업, 국제무역 및 무역원활화 (SME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 Scoping paper)

- 본 연구계획은 무역의 참여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으며, 무역원활화조치의 효과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나며, 중소기업이 특히 국경조치에 의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개발하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판별한 이후, OECD TFI를 사용하여 무역원활화정책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할 것이라고 밝힘

- 데이터는 WBES, OECD TEC 및 기업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며, 시계열측정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함

- 결과값은 정책페이퍼로 출간할 것이며, 무역농업국의 다른 연구들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함

3.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기업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무역, 직접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의 역할 (Micro-evidence on corporate relationships in global value chains: role of trade, FDI and strategic partnerships)

-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으로서 OLI(Ownership, Location, Internalisation)가 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이를 새롭게 설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해당 연구는 다국적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며, 연구결과 직접투자(FDI), 전략적 파트너십, 근거리무역(arm's length trade)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3가지의 배분비중은 기업에 따라 다르며, 심지어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폭스바겐과 도요타의

경우 같은 업종임에도 배분비중에서 차이를 보임).

- 직접투자의 경우, 수평적 직접투자가 수직적 직접투자에 비하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샘플 확장 및 정성적 데이터(기업 인터뷰 등)를 통해 좀 더 견고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함

IV. 기타 협의 사항

- OECD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OECD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세미나에 산업연구원이 참여할 것을 요청 받음.
 - 2018년 11월 개최 예정인 본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수출, 생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계획이며,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 및 한 세션을 맡아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함.
 - 구체적으로, 3세션 주관을 제안 받았으나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세미나 2일차 별도 진행 등 다른 형태도 가능성을 제시
- 주OECD 한국 대사관과 협력을 통하여 OECD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 협조함과 동시에 산업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방안 논의
 - OECD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과 임금의 변화, 고용 형태의 변화,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인한 효과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중
 - OECD와의 공동 연구 또는 산업연구원 자체 연구 발표에 대해서도

논의

- 내년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하지만, 향후 OECD·산업부·산업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중요 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 받음.

- 산업부에서 2018년 11월 세미나에 대해 1월 내 구체적인 예산 계획 및 세미나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연구원의 대응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